

# 즐거운 추억과 감성이 넘치는 서울교육박물관

글. 황동진 (서울교육박물관 학예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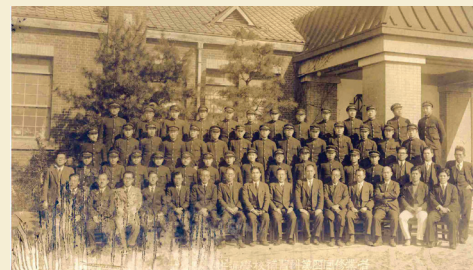


서울교육박물관 모습

## 어려운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꾼 박물관

서울교육박물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전문박물관이다. 처음 문을 연 1995년에는 유물 수집과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박물관 교육 및 새로운 전시 문화를 선보이며 북촌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박물관이 위치한 북촌은 조선 시대에는 왕족과 고위



01 1938년의 건물 박물관 건물 (현 경기교의 전신인 경기공립중학교 시절의 모습)

관리들 그리고 선비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며 대한제국 시절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발상지가 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쓰러져가는 나라를 신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현재 서울교육박물관이 위치한 이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관립한성중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그 후 한성중학교는 1906년에 한성고등학교로 1911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로 그리고 1921년에는 다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면서 학교 부지도 점차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학교에서는 기존의 학교 건물이 부족해지자 교장실, 교무실 그리고 행정실이 들어설 새로운 건물을 1925년에 준공하는데 바로 현재 서울교육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이때 지어진 것이다. 건물의 외벽은 붉은 벽돌 건물로 당시에 경성제일공립보통학교 본관으로 지어졌고 아름다운 외관과 건축적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 근대건축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서울교육박물관에 오면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발상지인 역사적인 장소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박물관 건물을 감상하는 것도 당시의 학교 건물과 건축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2 상설전시실

서울교육박물관의 전시실 소개를 하자면 상설전시실과 기획 전시실로 구분되는데 먼저 상설전시실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천사를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했던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

었고 그 체계를 자세히 보면 오늘날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완벽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03 삼국시대의 교육 모형



04 조선 시대 문과시험 모형

##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는 나라

우리나라 전통교육의 시작은 삼국시대부터인데 이중 고구려가 제일 먼저 태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귀족이나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그 후 고구려는 교육이야말로 국가를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시기에 일반 평민들로 공부할 수 있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다. 경당에서는 활쏘기를 배우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무일체의 교육체계가 고구려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한 힘이었을 것이다. 신라나 백제 역시 국학과 화랑제도 그리고 일본에 오경박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교육한 점을 보아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교육제도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체계화되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왕권강화를 위해 도입된 과거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과거제도는 958년(광종 9) 중국을 통해

도입되었다. 과거의 도입으로 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자연스럽게 학교제도의 발달로 이어진다. 과거제도의 탄생은 고려의 설립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려는 호족의 도움을 받아 세운 나라이기에 건국 초기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다. 4대 왕으로 등극한 광종은 강력한 왕권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광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기존에 정치 세력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왕의 통치철학에 순응하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과거는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뽑기 때문에 기존의 음서제도를 통해 관리가 되었던 정치세력을 견제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인재를 통해 개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음서제도란 조상의 덕으로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로 문, 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 대한 음서, 공신 자손에 대한 음서, 왕실의 먼 후대 자손에 대한 음서로 나눠 거의 모든 관직을 세습하도록 한 제도다. 음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문벌 귀족 계층들은 유리하게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음서 출신 중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과거 도입 후 과거시험을 치른 사실로 보아 정치에 뜻이 있거나 고위 관리가 되는 데에는 과거를 통하는 것이 더욱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제도가 정착되고 나라에서는 국자감을 설립하는데 국자감은 992년에 만든 학교로 오늘날의 종합대학과 같으며 관리를 길러내고 유학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국자감은 국학에서 성균감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공민왕 11년에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다. 이후 조선 시대도 과거제도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자리 잡는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회분위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을 만들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중심의 사회제도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선비정신을 발전시켜 조선 시대를 유지하고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비정신은 조선 시대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었다. 선비들은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먼저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는 현실주의적 관료파로 관직을 통해 나라를 위해 일하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상주의적 학구파로 주로 고향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끝없는 자기 성찰로 인품을 쌓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는 유형으로 주로 서원을 세워 운영하기도 했다. 이상주의적 학구파 중에는 홀로 공부하고 그 뜻을 집필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또한 선비들은 나라의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가장 선봉에 나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였다. 이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실천한 것으로 나약한 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도덕적 모범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비정신이 조선을 이끌고 유지하던 힘이었고 선비를 길러내는 조선 시대의 교육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 서당은 조선시대 전국 여러 곳에 널리 퍼져있던 사립교육기관으로 글방, 서재 등으로 불렸다. 조선은 나라를 처음 세울 때부터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 되는 곳이라 생각하여 인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서당의 운영은 향촌 내에서나 가문에서 학문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모셔온 사람이 훈장을 맡았고,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였던 접장이 있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강독, 제술, 습자 세 가지였고,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배웠다. 교육방법은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문하면 응답하는 방법, 외우고 낭독하는 방법 그리고 책을 보고 읽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7~8세에 입학하였고 15~16세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향교나 서원 등에 입학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세운 향교는 양인 이상의 신분으로 17세 이상의 남자가 입학할 수 있었고, 향교의 유생과 생도를 교생이라 하였으며 성균관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향교에서 생활하면서 소학과 사서오경 등 유학경전을 배우고, 농사철에는 농사를 도왔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주로 이름난 선비를 제사하고 그분의 얼과 행실을 본받고,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선비들이 스스로 만든 사립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지방의 선비들이 인재를 길러내고 백성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서원의 현판을 내리기도 하고, 책이나 노비를 지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서원들이 생겨났다. 임진

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에는 각 지역마다 의병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현재의 대학 정도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다. 성균관은 문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조선 시대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국가의 관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성균관의 졸업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점수 300점을 따서 문과 초시의 자격을 따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평균적으로 7년 반 정도 수학해야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었다고 한다.

이토록 체계적이며 세밀한 전통교육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 전통교육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창시절의 추억과 친구가 생각나는 박물관



05 교복입기 체험



06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은 현재 '교복의 이력서'라는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 내용은 우리나라 교복의 변천 과정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관람객이 추억의 교복을 직접 입어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1960년대 초등학교 교실과 학교 앞에서 보던 문방구를 재현한 공간은 관람객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여 학창시절의 추억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교복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서울교육박물관은 이렇게 관람객이 스스로 선택하여 관람하고 전시의 의미를 공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을 친근하고 살아 있는 공간으로 느끼도록 전시를 연출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의 주요 전시물은 삼국 시대부터 학생들이 입었던 교복을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교복변천사를 매직미러를 통해 모형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내레이션으로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을 알려 준다. 다른 전시대에는 시대별 교복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관람객이 현실감을 느끼며 현재의 교복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의 전시물은 추억의 졸업앨범과 각 학교 행사나 운동경기 때 받은 상패와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아련한 학창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느끼도록 하여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을 즐거운 체험과 추억을 전해주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을 친구처럼**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 및 체험활동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학생단체관람객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1일 박물관교실은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단체로 예약하면 전시실 안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교육의 장점과 특징을 함께 알아보고 삼국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알려준다. 그 외 체험활동으로 추억의 교복 입기, 조선 시대 선비 옷 입기, 1960년대 교실체험, 기념 도장 찍기, 전통놀이 등을 함께 하는 교육으로 접수나 운영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1회 15명~7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전통천자문교실은 서울교육박물관을 대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운영방식은 초등학교 3, 4학년 공개 모집하여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3일간 사자소학, 전통예절, 택견 등의 과목을 수업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조선 시대 선비가 입었던 도포를 입고 머리엔 유건을 쓰며 3일간 수업을 받게 된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과 생소한 전통교육 방식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대견하게 빠른 시간 안에 흥미를 보이며 적응해서 바른 자세로 수업을 받으며 정성을 다해 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내용은 사자소학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우고, 전통예절 시간을 통해 한복 입는 방법과 절하는 방법 그리고 예절의 기본과 어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생활예절 등을 배우고 우리의 전통무예인 택견을 배우는 시간도 있다. 택견의 유래와 초보적인 기본기를 배우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우리 전통 무예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다.



09 사자소학 수업



07

07-08 야외활동



08

생소한 전통교육 방식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대견하게  
빠른 시간 안에 흥미를 보이며 적응해서

바른 자세로 수업을 받으며  
정성을 다해 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10

10 어린이 해설사 활동

전시실 해설사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며 외국어 사용이 원활한 능력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일정 교육을 거쳐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실 해설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학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 해설사는 주로 평일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말로 설명하고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 해설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로 전시실 안내가 가능한 학생으로 주로 주말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11

11 토요일엔 박물관에서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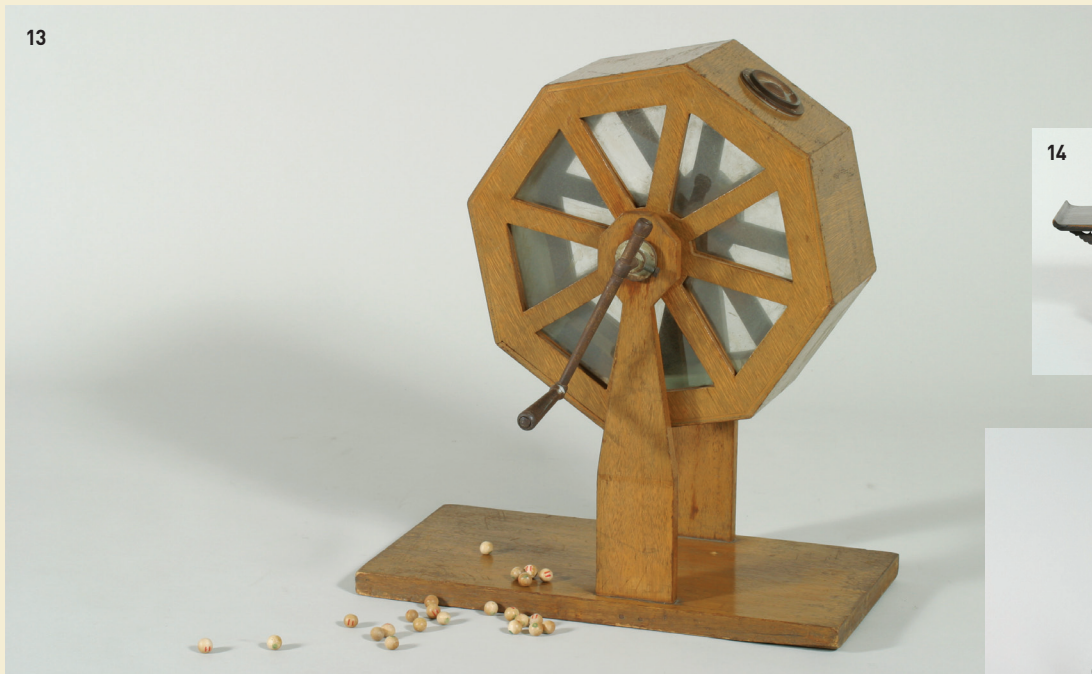
토요일엔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은 주말을 이용하여 박물관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가족 단위의 올바른 박물관 관람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모든 교육을 부모와 함께하면서 박물관의 기능과 관람예절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시실을 관람한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교실에서 그림책 읽고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으로는 나무판에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은 박물관에서만

할 수 있는 창의력과 감성을 이용한 즐거운 놀이 형식의 교육으로 호응도 좋아 건전한 박물관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문방기구 만들기 교육은 찾아가는 박물관 개념의 출장 교육과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박물관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학년 말 수험능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조선 시대 목기구의 특징과 장점을 알려주고 조선 시대 문방기구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는 교육이다. 소요시간은 2시간으로 긴 편이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이다.

12 문방기구 만들기





13

13 중학교 무시험 추천기  
14 서안  
15 유경  
16 소풍 가방과 운동화  
17 아이스크림 통



14

SEM620023



15

SEM630060



17

16

###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물

서울교육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교육과 관련된 유물로 주로 서적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서당이나 서원에서 사용하던 서적과 개화기의 교과서,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교과서 등 13,540점의 교육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교과서 이외의 유물은 각종 학습서와 공책, 일기장 등의 기록물 그리고 문구, 교복, 가방 등의 교구가 있다. 최근엔 박물관 전시가 관람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개화기 이후 근현대사 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60~70년대의 교육자료 및 생활사 자료를 중점적으

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말에 학생을 동반하여 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의 전시물이 아닌 부모세대가 직접 사용하고 배웠던 교육 자료와 생활용품을 가족이 함께 관람하면서 학생들에게 유물에 대하여 부모가 직접 설명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이 바로 서울교육박물관이다.

### 더 많은 사람과 추억을 공유하는 박물관

앞으로 서울교육박물관은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배움의 장소로 발전하여 관람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교육의 장점은 긴 세월만큼이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형태로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선진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학교 현장을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내는 곳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광복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 우리 교육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한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문제점이나 자라는 세대를 보고 교육이 문제라고 누구나 쉽게 말한다. 하지만 책임 없는 비판보다는 지난 우리 전통교육의 우수성과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서울교육박물관 관람을 통해 가졌으면 한다. **IN**



18 도덕교과서(1979)



19 국어교과서(1979)

SHARE MEMORIES



#### 필자 소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교육박물관 학예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아동문화콘텐츠로 석사학위 취득하였으며 저서로는 『우리는 학교에 가요』(2012)가 있으며 현재 그림책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